

전일동향

전일대비 7.30원 하락한 1,398.00원에 마감

7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7.30원 하락한 1,398.00원에 마감했다.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25.30원 하락한 1,380.00원에 개장했다. 환율은 대만 달러 초강세에 따른 아시아 통화 강세에 하락 출발했다. 이후 저가 매수세 유입에 환율은 낙폭을 축소하며, 1,398.00원에 증가(15:30 기준)를 기록했다. 주간장중 변동 폭은 22.80원이었다. 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77.97원이다.

전일환율변동	구분	시가	고가	저가	증가(15:30)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달러	1380.00	1402.50	1379.70	1398.00	1394.10
엔화	986.36	986.73	961.18	971.89	-	
유로화	1597.40	1598.67	1560.35	1579.38	-	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	1M	3M	6M	12M
	보장환율(수출)		-2.16	-7.99	-16.19
결제환율(수입)		-1.7	-7.06	-14.3	-27.28
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
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<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>) 확인

금일 전망

매파적 FOMC에...1,390원대 후반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2.80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(1,398.00) 대비 0.50원 상승한 1,395.7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 금일 환율은 파월의 매파적 발언에 따른 강달러에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. 연준은 FOMC 정례회의에서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하며 연방기금금리를 4.25~4.50%로 유지했다. 파월 의장은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은 있지만 경기는 견조하기에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. 한편 금주 중 스위스에서 미-중 고위급 인사 회담 개최 일정이 알려지며 관세 협상 기대가 고조됐으나,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협상 시작 전까지 대중 관세율을 인하할 의향이 없다며 불안감을 자극했다. 달러인덱스는 파월의 금리 인하 신중론 및 관세 불확실성에 0.63 상승한 99.90으로 마감했다. 금일 환율은 글로벌 강달러 압력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. 아울러 수입 결제 등 실수요 저가매수도 환율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. 다만, 수출업체 네고 물량 등에 환율의 상단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393.80 ~ 1403.60 원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+3487.49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.50원 ↑
	■ 美 다우지수 : 41113.97, +284.97p(+0.7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158.46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15896 억원

※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